

<부산인권아카데미 2022년 상반기 강좌>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19:00 – 21:00

주관: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발표: 안숙영(계명대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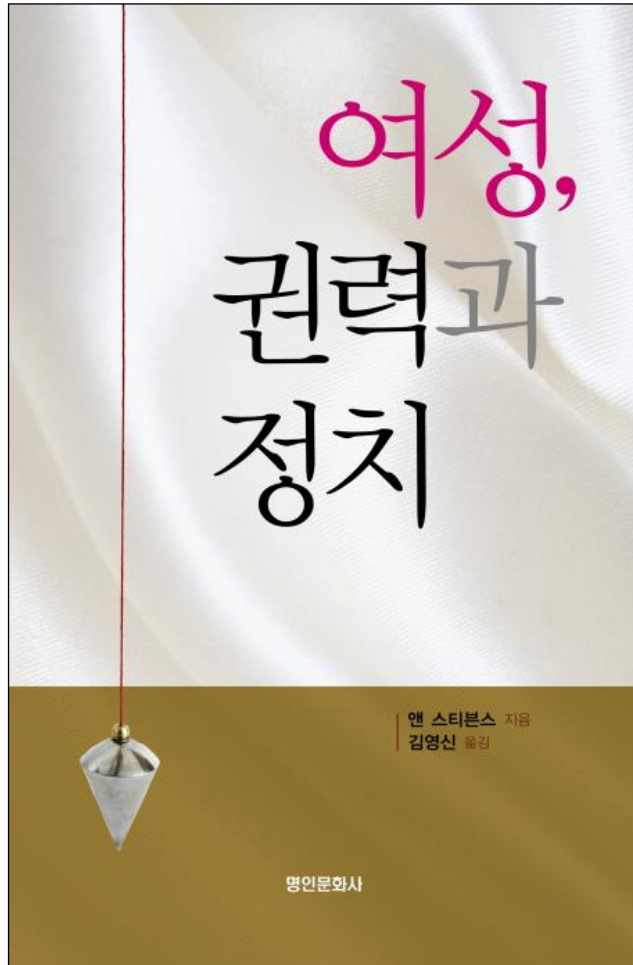
정치 공간에서의 젠더와 공정, 혹은 젠더와 평등?

목차

1. 젠더와 공정, 혹은 젠더와 평등?
2. 정치 공간에서의 젠더불평등의 현주소
3. 정치 공간의 남성중심성
4. 평등 개념의 확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 젠더와 공정 혹은 젠더와 평등?

정치 공간, 젠더 그리고 돌봄: 같은 공간, 다른 운명



▶ 앤 스티븐스, 김영신 옮김, 『여성, 권력과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0.

▶ 장관과 아들

1992년 임명된 브르덴(Frédérique Bredin) 청소년 체육부 장관은 자신의 재임 시절 비망록에서 총리가 주재한 공식회의에 참석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술회하고 있다. 회의는 당시 긴급하고 논란이 많았던 사안에 관련한 것이었다. 회의 도중에 메모를 전달받았지만, 브르덴 장관은 회의가 방해되는 것을 총리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메모를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가 종료될 시점인 저녁 8시에 그녀는 회의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집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비서는 불안한 목소리로 메모를 받았냐고 물었다. 아들의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담임선생님은 아이를 마중 나올 사람이 없자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돌보던 오페어(au pair, 가정에 입주하여 집안일을 거들며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가 갑자기 고향생각이 간절해서 사전 예고도 없이 떠나버렸던 것이다.

브르덴 장관은 죄책감에 사로 잡힌 채 4살 된 아들을 데리러 담임선생님의 집으로 달려갔다.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엄마를 좋게 생각할 리 만무했다. 브르덴 장관은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야, 담임선생님, 비서, 심지어 나 자신도 남편에게 전화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고 술회한다.”(p. 204)

정치 공간, 젠더 그리고 돌봄



- MBC 뉴스데스크, 2021.5.12, "아이 동반도, 출산 휴가도 불가"...다른 나라는?

〈표 1〉 성별 국회의원 현황: 1-21대

국회	전체		지역구		비례대표	
	총 의원수	여성의원	총 의원수	여성의원	총 의원수	여성의원
1대(1948)	200	1 (0.5%)		1 (0.5%)		
2대(1950)	210	2 (0.9%)		2 (0.9%)		
3대(1954)	203	1 (0.5%)		1 (0.5%)		
4대(1958)	233	3 (1.3%)		3 (1.3%)		
5대(1960)	233	1 (0.4%)		1 (0.4%)		
6대(1963)	175	2 (1.1%)	131	1 (0.7%)	44	1 (2.3%)
7대(1967)	175	3 (1.7%)	131	1 (0.7%)	44	2 (4.5%)
8대(1971)	204	5 (2.5%)	153	0 (0.0%)	51	5 (9.8%)
9대(1973)	219	12 (5.5%)	146	2 (1.4%)	73	10 (13.7%)
10대(1978)	231	8 (3.5%)	154	1 (0.6%)	77	7 (9.1%)
11대(1981)	276	9 (3.3%)	184	1 (0.5%)	92	8 (8.7%)
12대(1985)	276	8 (2.9%)	184	2 (1.1%)	92	6 (6.5%)
13대(1988)	299	6 (2.0%)	224	0 (0.0%)	75	6 (8.0%)
14대(1992)	299	8 (2.7%)	237	1 (0.4%)	62	7 (11.3%)
15대(1996)	299	11 (3.7%)	253	3 (1.2%)	46	8 (17.4%)
16대(2000)	273	16 (5.9%)	227	5 (2.2%)	46	11 (23.9%)
17대(2004)	299	39 (13.0%)	243	10 (4.1%)	56	29 (51.8%)
18대(2008)	299	41 (13.7%)	245	14 (5.7%)	54	27 (50.0%)
19대(2012)	300	47 (15.7%)	246	19 (7.7%)	54	28 (51.9%)
20대(2016)	300	51 (17.0%)	249	26 (10.4%)	51	25 (49.0%)
21대(2020)	300	57 (19.0%)	253	29 (11.4%)	47	28 (59.6%)

○ 김경희,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정치할당제의 지속가능성과 여성 정치세력화”, 『경제와 사회』 94 (2012), p. 124.

20대와 21대 현황은 이후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공정, 평등 그리고 젠더

- ▶ **공정(公正, fair):** 공평하고 올바름, 예) "공정거래", "공정보도"
- ▶ **평등(平等, equality):** 권리·의무·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예) "평등한 대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젠더와 공정:** 능력주의와 결합, 여성과 남성 간의 공정한 경쟁의 구도로 협소화, 개인의 선택이나 성취의 문제로 환원 경향
- ▶ **젠더와 평등:** 구조적 문제로서의 성차별적 억압의 종식에 관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

⇒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은 엄혜진,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경제와 사회』 통권 제132호(2021), pp. 47-79 참조.

~ 정치 공간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현주소

2021년 글로벌 젠더 격차의 현주소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1 rankings

Rank	Country	Score		Rank change	Score change	
		0-1		2020	2020	2006
1	Iceland	0,892	0,892	-	+0,016	+0,111
2	Finland	0,861	0,861	1	+0,029	+0,065
3	Norway	0,849	0,849	-1	+0,007	+0,050
4	New Zealand	0,840	0,840	2	+0,041	+0,089
5	Sweden	0,823	0,823	-1	+0,003	+0,009
6	Namibia	0,809	0,809	6	+0,025	+0,122
7	Rwanda	0,805	0,805	2	+0,014	n/a
8	Lithuania	0,804	0,804	25	+0,059	+0,096
9	Ireland	0,800	0,800	-2	+0,002	+0,066
10	Switzerland	0,798	0,798	8	+0,019	+0,098
11	Germany	0,796	0,796	-1	+0,010	+0,044
12	Nicaragua	0,796	0,796	-7	-0,008	+0,139
13	Belgium	0,789	0,789	14	+0,039	+0,081
14	Spain	0,788	0,788	-6	-0,006	+0,056
15	Costa Rica	0,786	0,786	-2	+0,003	+0,092
16	France	0,784	0,784	-1	+0,003	+0,132
17	Philippines	0,784	0,784	-1	+0,003	+0,032
18	South Africa	0,781	0,781	-1	+0,001	+0,068
19	Serbia	0,780	0,780	20	+0,044	n/a
20	Latvia	0,778	0,778	-9	-0,007	+0,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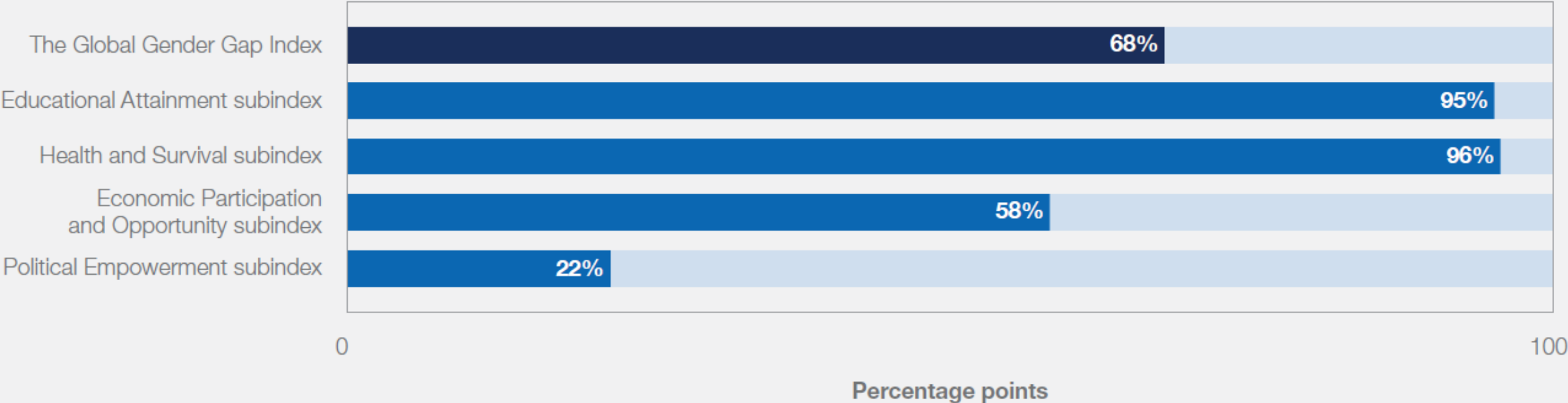
Rank	Country	Score		Rank change	Score change	
		0-1		2020	2020	2006
101	Indonesia	0,688	0,688	-16	-0,013	+0,034
102	Korea, Rep.	0,687	0,687	6	+0,016	+0,071
103	Cambodia	0,684	0,684	-14	-0,010	+0,055
104	Senegal	0,684	0,684	-5	-0,000	n/a
105	Togo	0,683	0,683	35	+0,068	n/a
106	Nepal	0,683	0,683	-5	+0,003	+0,135
107	China	0,682	0,682	-1	+0,006	+0,026
108	Kyrgyz Republic	0,681	0,681	-15	-0,007	+0,007
109	Myanmar	0,681	0,681	5	+0,016	n/a
110	Mauritius	0,679	0,679	5	+0,014	+0,046
147	Saudi Arabia	0,603	0,603	-1	+0,003	+0,079
148	Chad	0,593	0,593	-1	-0,003	+0,068
149	Mali	0,591	0,591	-10	-0,030	-0,009
150	Iran, Islamic Rep.	0,582	0,582	-2	-0,002	+0,002
151	Congo, Democratic Rep.	0,576	0,576	-2	-0,002	n/a
152	Syria	0,568	0,568	-2	+0,001	n/a
153	Pakistan	0,556	0,556	-2	-0,007	+0,013
154	Iraq	0,535	0,535	-2	+0,005	n/a
155	Yemen	0,492	0,492	-2	-0,002	+0,032
156	Afghanistan*	0,444	0,444	n/a	n/a	n/a

▷ 자료: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10.

FIGURE 1.2

The state of gender gaps, by subindex

Percentage of the gender gap closed to dat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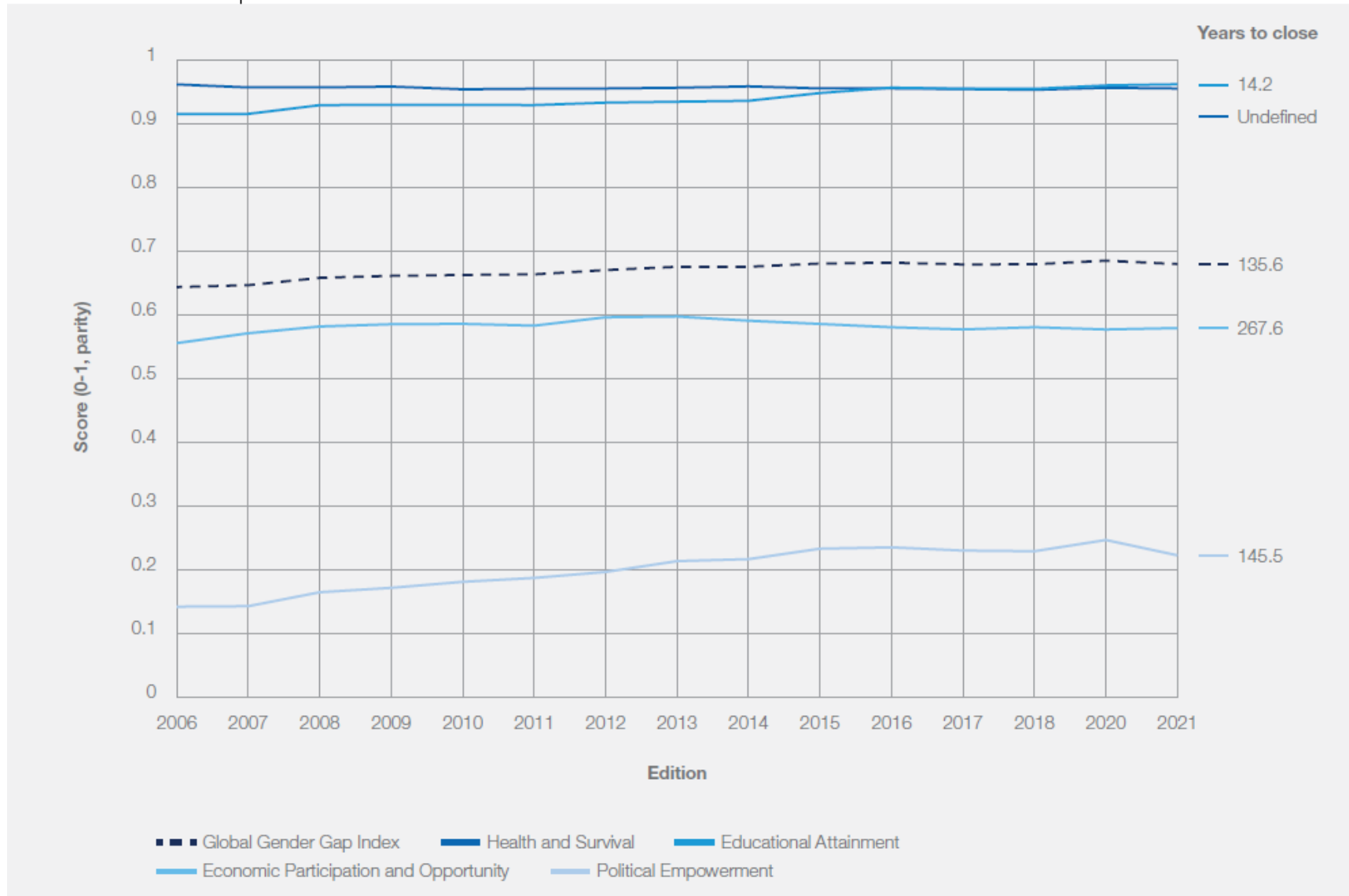


▷ 자료: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11.

FIGURE 1.4

Evolution of the Global Gender Gap Index and subindexes over time

Evolution in scores, 2006–2020



▷ 자료: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17.

FIGURE 1.8

Regional performance 2021, by subindex

	Overall Index	Subindexes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Political Empowerment
Western Europe	77.6%	70.0%	99.8%	96.7%	43.8%
North America	76.4%	75.3%	100.0%	96.9%	33.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72.1%	64.2%	99.7%	97.6%	27.1%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71.2%	73.5%	99.7%	97.7%	14.2%
East Asia and the Pacific	68.9%	69.6%	97.6%	94.9%	13.5%
Sub-Saharan Africa	67.2%	66.1%	84.5%	97.3%	20.8%
South Asia	62.3%	33.8%	93.3%	94.2%	28.1%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60.9%	40.9%	94.2%	96.5%	12.1%
Global average	67.7%	58.3%	95.0%	97.5%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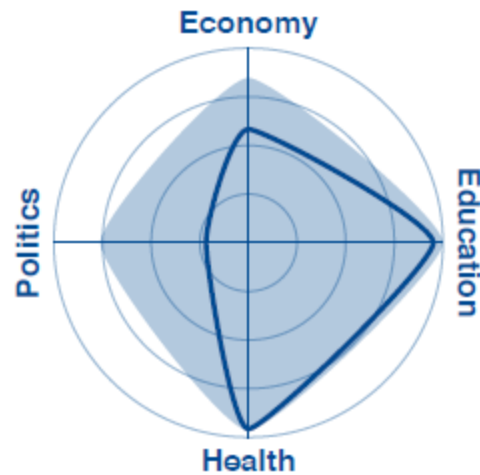
0  1

▷ 자료: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23.

Iceland

rank **1**
out of 156 countries

score **0.892**
0.00 = imparity
1.00 = parity



Global Gender Gap Index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Political empowerment

2006 score

4 0.781
17 0.711
50 0.991
92 0.968
4 0.456

2021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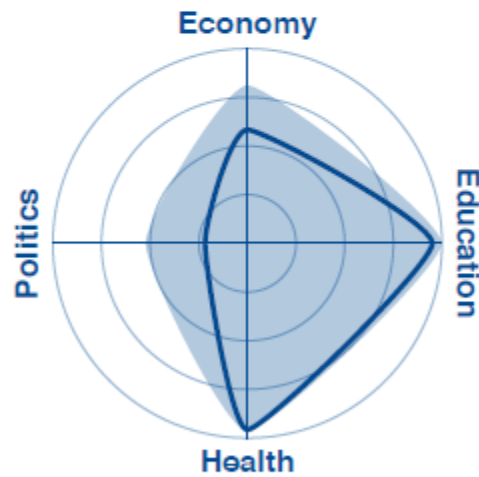
1 0.892
4 0.846
38 0.999
127 0.964
1 0.760

▷ 자료: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215.

Sweden

rank **5**
out of 156 countries

score **0.823**
0.00 = imparity
1.00 = parity



Sweden score
average score

Global Gender Gap Index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Political empow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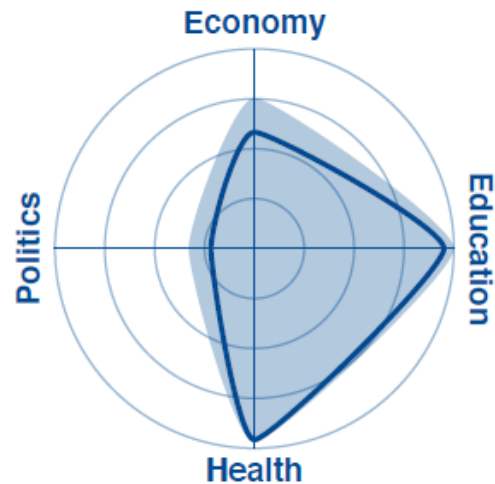
	2006 score	2021 score
1	0.813	5
9	0.731	11
23	0.999	61
70	0.973	133
1	0.550	9

▷ 자료: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357.

United States

rank **30**
out of 156 countries

score **0.763**
0.00 = imparity
1.00 = parity



United States score

average score

Global Gender Gap Index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Political empowerment

2006 score

23 **0.704**

3 0.759

66 0.982

1 0.980

66 0.097

2021 score

30 **0.763**

30 0.754

36 1.000

87 0.970

37 0.329

▷ 자료: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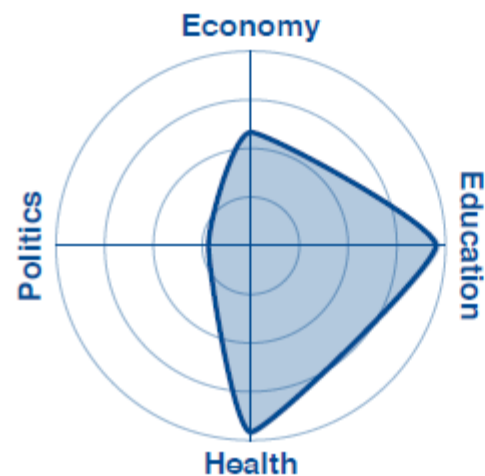
Korea, Rep.

rank
out of 156 countries

102

score
0.00 = imparity
1.00 = parity

0.687



— Korea, Rep. score
— average score

Global Gender Gap Index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Political empowerment

2006 score

92

0.616

2021 score

102

0.687

96

0.481

123

0.586

82

0.948

104

0.973

94

0.967

54

0.976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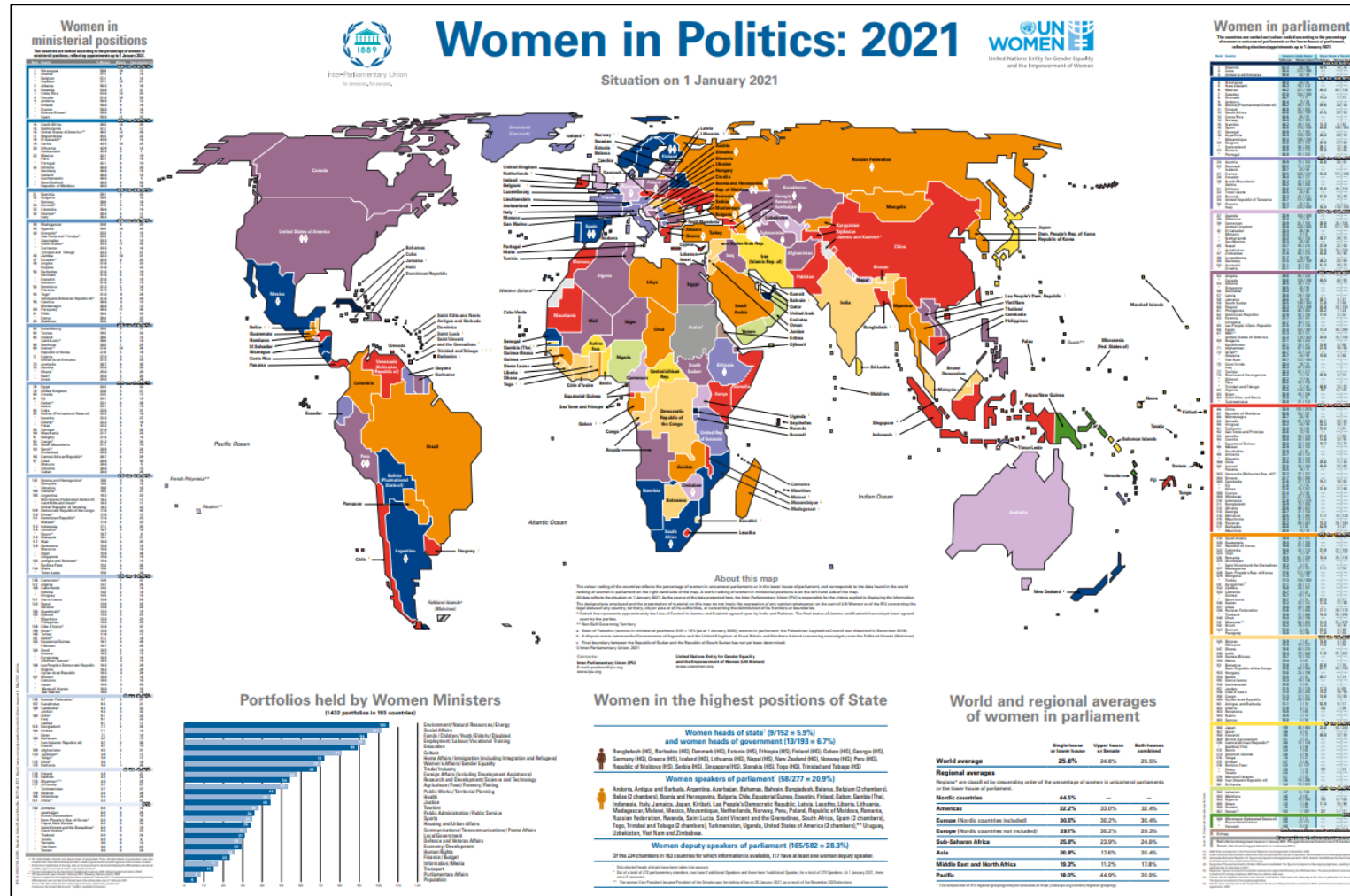
0.067

68

0.214

▷ 자료: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241.

전 세계 정치 공간에서의 젠더불평등의 현주소



○ Women-in-politics-2021-en.pdf (unwomen.org)

유럽젠더평등연구소의 젠더평등지수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각 핵심영역별 점수(2005년-2021년)>

핵심영역	2005년	2010년	2012년	2015년	2021년
노동	70.0	70.5	71.0	71.5	71.6
돈	73.9	78.4	78.4	79.6	82.4
지식	60.8	61.8	62.8	63.4	62.7
시간	66.7	66.3	68.9	65.7	64.9
권력	38.9	41.9	43.5	48.5	55.0
건강	85.9	87.2	87.2	87.4	87.8
전체	62.0	63.8	65.0	66.2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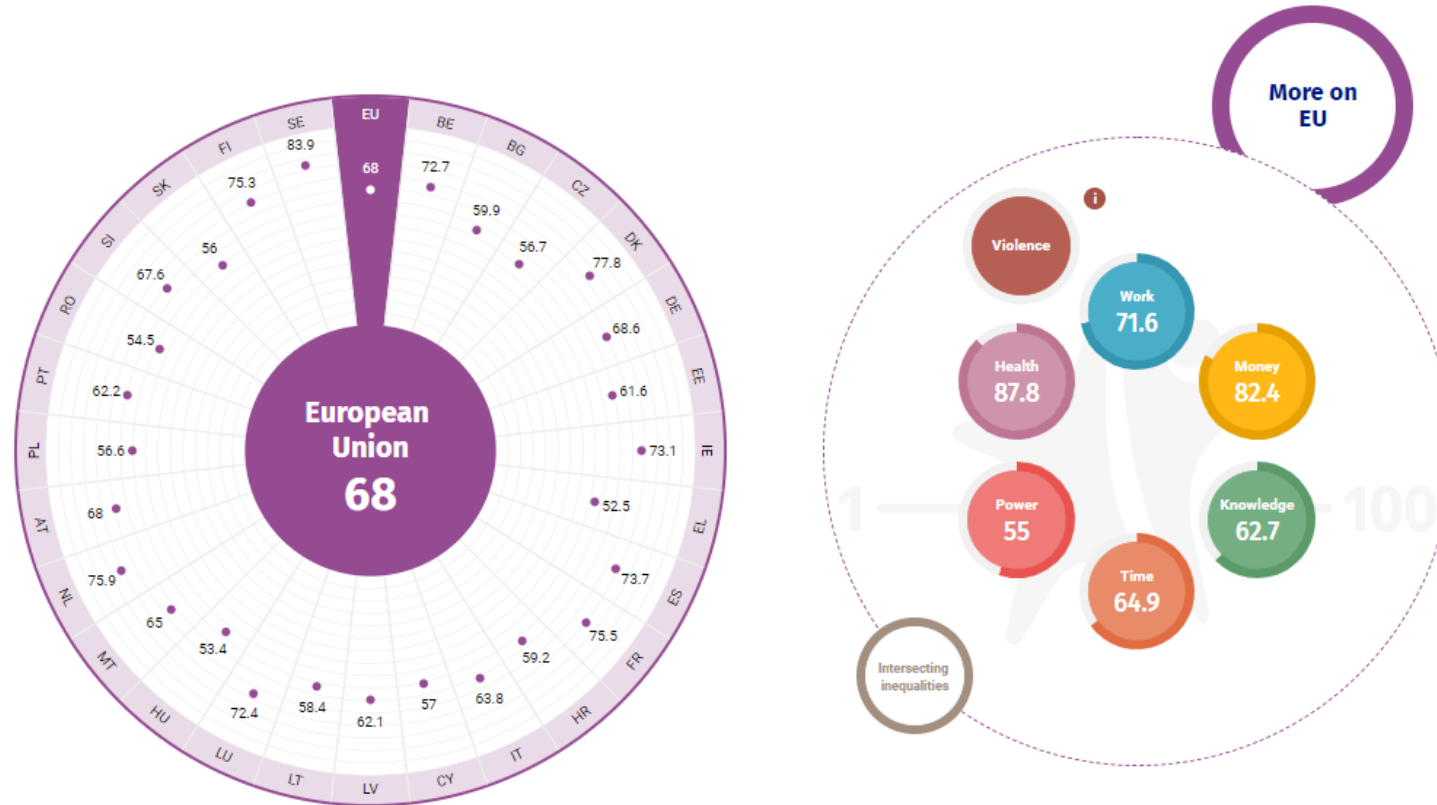
○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17), *Gender Equality Index 2017: Measuring Gender 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2005-2015*,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p. 9, 7. 2021년 점수는 홈페이지에서 추가.

Gender Equality Index

[Home](#) [View countries](#) [Compare countries](#) [Thematic Focus](#) [About Index](#) [Publications](#) [Conference 2021](#) [Index Game](#)

Index score for European Union [for the 2021](#) [edition](#)

 The data for 2021 Index is mostly from 2019. The UK is not included.



 [Gender Equality Index |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uropa.eu\)](#)

3. 정치 공간의 남성중심성

정치 공간의 남성중심성



○ 드루드 달레루프, 이영아 옮김, 『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서울: 현암사, 2018, pp. 53-54.

<표 1> 여성의 수적 대표성에 근거한
남성 정계 장악의 정도

장악 정도	선출된 여성 비율
남성 독점	10% 미만
작은 소수의 여성	10-25%
거대한 소수의 여성	25-40%
성별 균형	40-60%

정치 공간의 남성중심성

<표 2> 정치계를 남성이 장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섯 관점

1. 대표성: 여성 의원의 수적 열세

2. 일터로서의 정치계: 남성 중심의 의회 규범과 관례

3. 수직적 성 분리: 성별에 따른 직책의 불평등한 분배

4. 수평적 성 분리: 여러 장관직과 위원회에 여성의 접근이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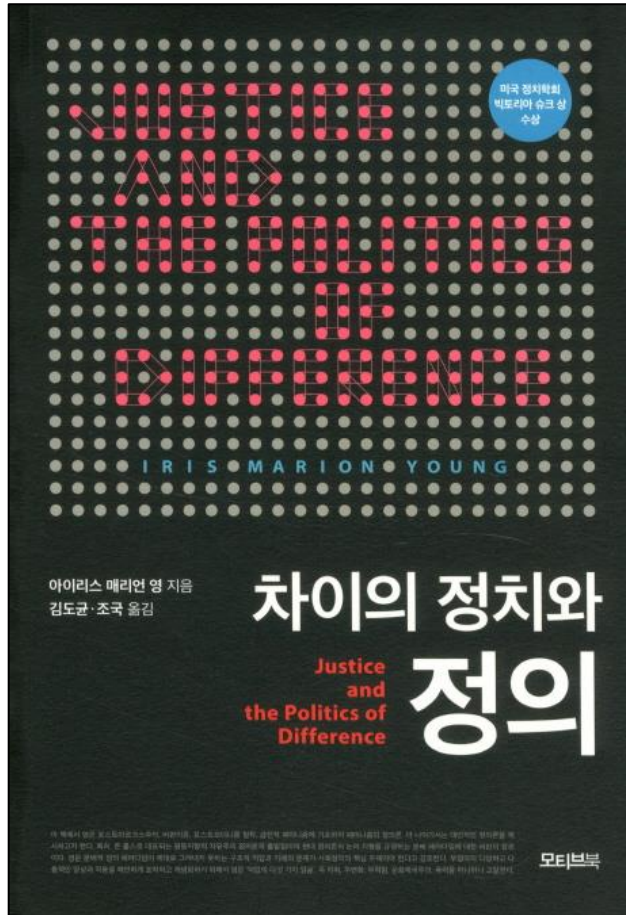
5. 공공 정책: 남성에게 우호적인 정책들, 성평등에 대한 부족한 관심

6. 담론과 뉴스 미디어의 편향적 시각: 정치인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젠더적 인식

여성 할당제(Gender Quo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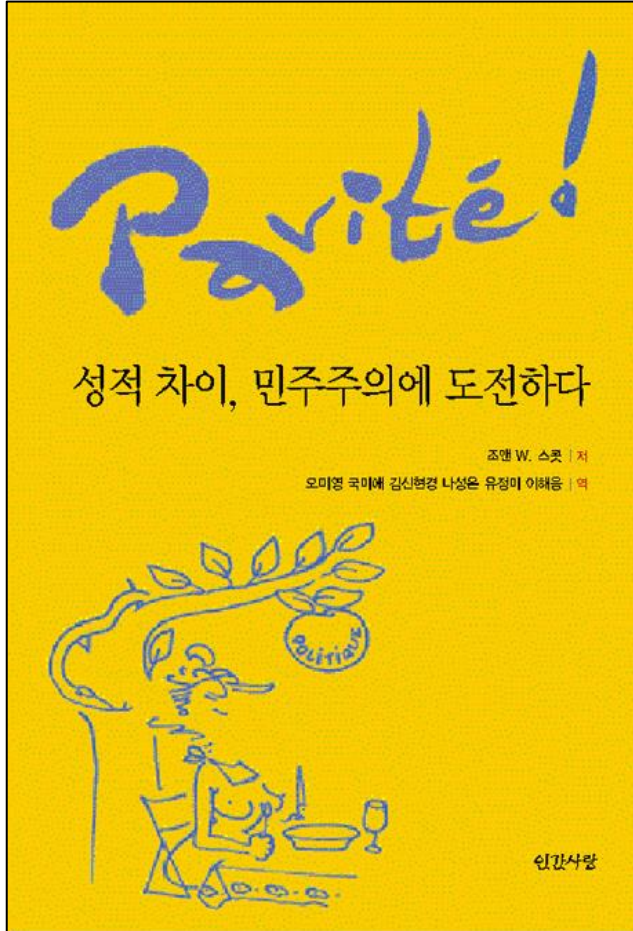
- ▶ 드루드 달레루, 이영아 옮김, 『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서울: 현암사, 2018.
- ▶ “할당제는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이 정치에 불신을 가져 위기에 빠진 전통적 민주주의 국가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서 할당제는 민주주의에서 ‘누가(who)’를 바꾼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대표자는 언제나 부족했다. 할당제는 이런 상황을 바꾸어 ‘누가’ 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라는 면에서 민주화에 기여한다. 두 번째 질문에서, 할당제를 통해 ‘정치의 비밀 정원’을 개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어떻게(how)’, 즉 정치 체제의 구조를 개혁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한 이유가 사실상의 특별 대우가 백인 남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면, 할당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위배나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여성이나 다른 소수자들이 정치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보상이 된다.”(pp. 112-113)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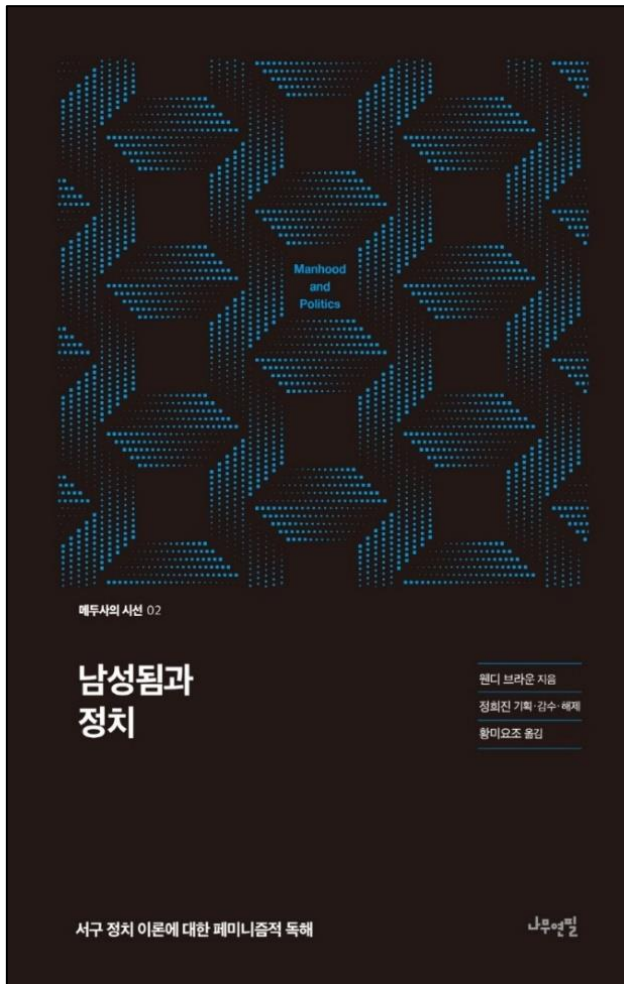
- ▶ 아이리스 매리언 영, 김도균·조국 옮김,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2017.
- ▶ "대부분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과거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배상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 그러한 정당화는 적극적 차별시정 프로그램의 허용 범위를 매우 좁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정책은 의사결정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편향과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변들이 더 설득력이 강하다. (...) 여성과 유색인종은 의사결정자들 – 이들은 여전히 백인이거나 남성이며, 대개는 이 둘 다이다 – 의 무의식적인 고정관념, 반응 기대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절차는 여성과 유색인을 여전히 집요하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생각들 및 인식들과 싸우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자 정의로운 수단이다."(pp. 414-415).
- ▶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제1의 목적은 **현행 제도들과 현재의 의사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의 영향력, 그리고 집단 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pp. 422-423)

남녀동수(Parit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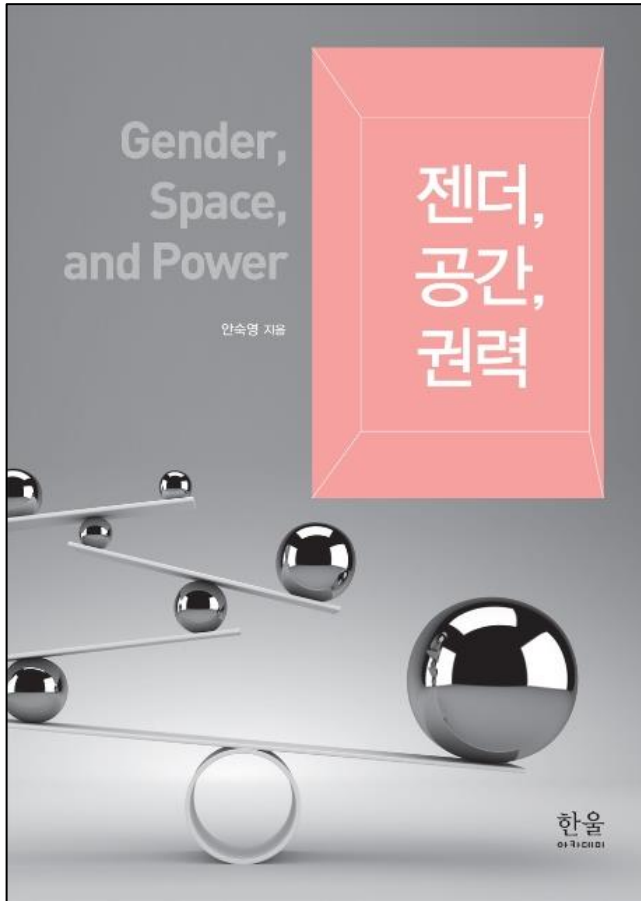
- ▶ 조앤 W. 스콧, 오미영 외,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서울: 인간사랑, 2009.
- ▶ “여성은 남성과 같고, 그래서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거나 여성은 남성과 다르고, 그래서 정치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공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남녀동수’ 지지자들은 젠더 정형(stereotype)을 다루길 아예 거부했다. 동시에 그들은 진정한 평등이 확산되려면 성(sex)이 추상적 개인주의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직업, 사회적 지위, 인종, 민족성 등과 관계없이 보편주의가 의존했던 중립적 형상인 추상적 개인은 성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야 했다. 바로 여기에 혁신이 있었다. 이전 페미니스트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남성으로 상상된 중립적 모습에 더 이상 끼워 맞추고 있지 않았고, 여성성이라는 분리된 구현체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추상적 개인 그 자체가 여성을 수용하도록 재형상화하고 있었다.”(p. 30).

남성됨과 정치



- ▶ 웬디 브라운, 황미요조 옮김, 『남성됨과 정치: 서구 정치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독해』, 서울: 나무연필, 2021.
- ▶ “나는 정치학과 정치 이론이 남성에게 독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를 가로지르며 연속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남자다움이라는 사회적으로 고안된 속성 및 자만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정치적 삶에 여성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변치 않으리라는 점을 감지했다. 서구 정치학은 남성주의적이며 그 형식·정신·내용에서, 범주에서, 특징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혐오의 대상을 정하는 데서 그 호감과 반감에서 여성 혐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지했다. 정치학과 정치 이론에서 여성에 대한 질문을 꺼낸 뒤 진지한 어떤 지점에 다다르려면, ‘남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p. 16)

지배 없는 권력(power without domination)



- ▶ 안숙영, 『젠더, 공간, 권력』,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0.
- ▶ “남성 중심의 정치 공간에서 오랫동안 ‘권력(power)’은 ‘지배(domination)’와 동의어로 이해되어 왔다. (...) 여성 리더가 권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 권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면, 권력으로부터 지배의 흔적을 제거하여 ‘지배 없는 권력(power without domination)’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권력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속성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속성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권력 개념 그 자체의 소멸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가야 한다.”(p. 65)

4. 평등 개념의 확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평등 개념의 확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평등의 세 차원

실질적
평등

3) **결과의 평등:** 오랫동안 누적된 차별로 여성이 현재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평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평등한 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것

2) **조건의 평등:**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형식적
평등

1) **기회의 평등:**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 및 법적·사회적 대우를 제공하는 것

기회의 평등



- 이하 모든 만평의 출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justice/gender-equality>

기회의 평등

▶ 걸스데이(Girls'Day)



[Home | Girls'Day \(girls-day.de\)](https://girls-day.de)

▶ 보이스데이(Boys'Day)



[Home | Boys'Day \(boys-day.de\)](https://boys-day.de)

조건의 평등



조건의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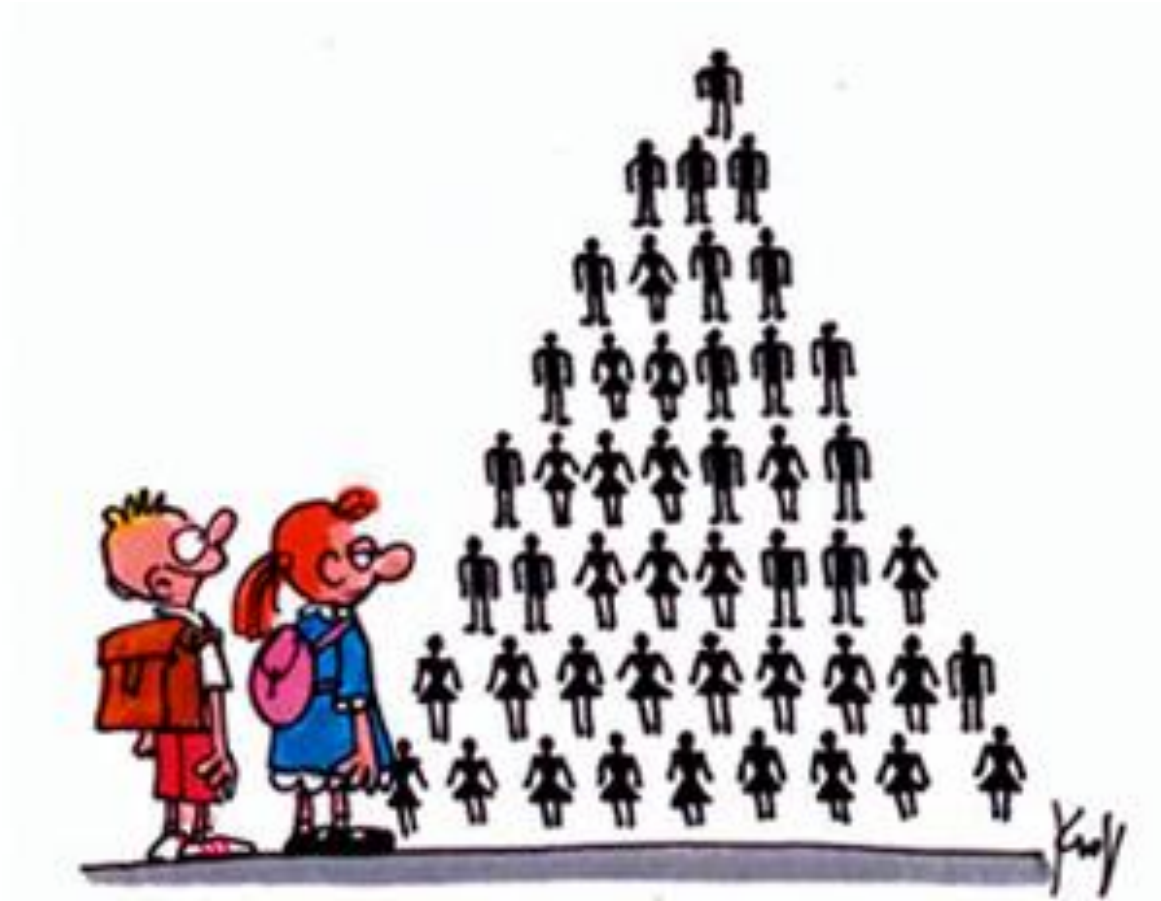


- YTN, 2017.5.10, 의회에서 당당히 모유 수유... "일하는 여성에 역사적 순간".



- 연합뉴스TV, 2017년 11월 10일, "의회 분위기 바꾸자"... 뉴질랜드 국회의장, 애 보며 회의진행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10. 22
[세계 민주주의를 만나다] 7회 (프랑스) 여성정치참여 제도_남녀동수법(여성할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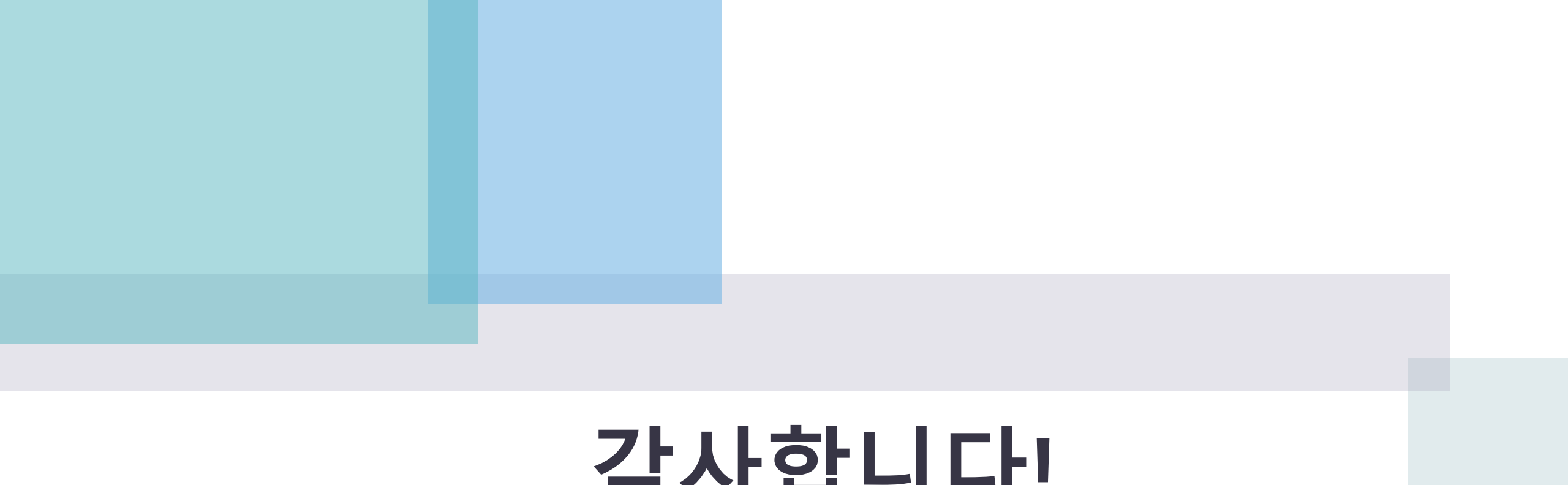
돌봄혁명과 정치혁명의 동시성



© 안숙영



© 안숙영



감사합니다!